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Issue Comment

- ✓ GS 리테일이 요기요 인수에 성공함
- ✓ 퀵커머스 3 대 요소를 두루 갖춘 퀵커머스 대장 사업자 된 것
- ✓ 기업가치에 큰 영향 줄 전망이며 배민의 향후 행보 주목 필요

GS 리테일 + 요기요 > 배달의민족 B 마트

SK 증권 스마트시티추진실은 지난 7 월 27 일 발간한 'Smart Commerce_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쿠팡과 GS 리테일' 인덱스 보고서를 통해 최근 태동하고 있는 퀵커머스 시장을 분석하며 GS 리테일이 배달의민족 B 마트와의 파일럿 서비스 이후 요기요 인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실제 인수 시 GS 리테일 기업가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인터넷 플랫폼(요기요 앱), 이륜차(메쉬코리아), 지역물류거점(GS 리테일 16,000 여개 점포 + 요기요 MFC 10 여 곳)의 퀵커머스 성공 3 요소를 두루 갖 추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물류거점이 상당히 부족한 배달의민족 B 마트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7 월 16 일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8 월 13 일 오후 GS 리테일은 요기요 지분 100%를 사모펀드와 함께 8,000 억원에 인수한다는 공시를 함. GS 리테일이 30%, 사모펀드가 70%의 지분을 인수하는 동시에 요기요에 대해 2,000 억원의 유상증자에 나서며 GS 리테일은 총 3,000 억원을 집행함. 자금 조달을 위해 파르나스호텔을 GS 건설에 매각할 가능성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GS 홈쇼핑 인수로 현금성 자산 여력이 충분해 자금 조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향후 배달의민족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 있음. 배달의민족이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한 전통 유통 채널 등과의 제휴 모색할 가능성 있음.

배달의민족과 파일럿 서비스 진행했던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해 퀵커머스 대장 사업자로 거듭남



자료 : SK 증권

자료 :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